민주시민교육 연구보고서 2019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지역 민주시민교육 유형화 및 효과분석을 위한 질적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민주시민교육 연구보고서 2019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지역 민주시민교육 유형화 및 효과분석을 위한 질적 연구

연구책임자 **정원규** (서울대학교)

공동연구원 **김원석**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옹진환 (가원중학교)
정하윤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SNU R&DB Foundattion

본 연구보고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의
연구용역 과제로 제출되었으며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15
3. 선행 연구 검토 18

02. 연구 방법 및 진행 과정 22

1. 연구 방법 22
2. 연구 진행 과정 26

03.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29

1.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둘러싼 혼란 29
2.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에 관한 수렴가능성 32

04.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요소 37

1.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의 공통적 요소들 37
2. 민주시민교육 유형 및 특성에 따른 활성화 요소들 43

05. 정책적 함의 ····· 55

1. 정책적 함의 추출의 전제 :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적 반응성 · · · 55
2. 정책 집행 기구에 대한 선결 과제 · · · · · · · · · · · · · · · 58
3. 정책적 제언 · 60

06. 요약 및 후속 연구 제언 ····· 65

1. 연구 요약 · 65
2. 연구 활용 방안 및 후속 연구 제언 · · · · · · · · · · · · · · · 70

참고문헌 ····· 73

부록 ····· 80

1. 연구 대상자 개요 · 80
2. 설문지 (프로그램 진행자용) · · · · · · · · · · · · · · · · · · 82
3. 설문지 (프로그램 참여자용) · · · · · · · · · · · · · · · · · · 86

표 목차

표 1.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분류 ····· 44
표 2. 유형1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 49
표 3. 유형2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 50
표 4. 유형3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 51
표 5. 유형4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 52
표 6. 유형5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 53
표 7. 유형6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 54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개요 ····· 14
[그림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17
[그림 3] 연구 대상자 ····· 23
[그림 4] 자료 수집 단계 ····· 23
[그림 5] 질문지 예시 ····· 27
[그림 6]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규정 ····· 35
[그림 7] 민주시민교육의 분류 기준 : 주제 ····· 46
[그림 8] 민주시민교육의 분류 기준 : 초점 ····· 47
[그림 9] 캔디드 웹사이트 ····· 61
[그림 10]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62
[그림 11] 연합 기구의 역할 ····· 64

인터뷰 목차

인터뷰 1.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혼란 ····· 30
인터뷰 2. 시민 개념에 대한 혼란 ····· 31
인터뷰 3.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에 대한 넓은 인정 ····· 32
인터뷰 4. 반공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없다는 의견 ····· 33
인터뷰 5. 반공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다는 의견 ····· 33
인터뷰 6. 취미 활동이 민주시민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 34
인터뷰 7. 취미 활동을 민주시민교육에 포함하기 위한 근거 ····· 35
인터뷰 8. 프로그램의 주제와 진행방식에 대한 의견 ····· 38
인터뷰 9. 프로그램의 외적 요소(공간 유지)에 대한 의견 ····· 39
인터뷰 10. 프로그램의 외적 요소(홍보 수단)에 대한 의견 ····· 39
인터뷰 11. 강사 확보의 어려움 ····· 40
인터뷰 12. 비공식적 모임의 중요성 ····· 41
인터뷰 13. 개인적 이해관심 충족의 중요성 ····· 42
인터뷰 14. 개인적 주제에 대한 이해 ····· 45

0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난 시기 시민교육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광복 이후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시민교육은 반공교육의 기치 아래 실제로는 순응하는 국민을 만들려는 신민교육(臣民敎育)의 일환으로 기획, 운영되었으며, 학교는 이러한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 적극 활용되었다(알튀세르, 2007). 반면에 진보적인 교사를 포함한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비판과 참여에 바탕을 둔 적극적 시민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시행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4.19혁명에서 2016년의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시민적 저항들의 씨를 뿌렸고, 결국 우리 사회를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적 대전환 이후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은 축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급격한 성장과 분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인권,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 거의 모든 사회적인 요소들을 특히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정하윤, 2015).

그런데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가 오히려 이처럼 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민주주의가 '형해화(形骸化)'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가 안착되고 일상적 삶에까지 그 가치나 원리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가치, 태도, 역량을 지닌 시민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심지어 민주화를 이뤄낸 사람들마저 아

직 민주적 삶에 익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 정책적 · 문화적 갈등에 더불어, 이제 양성평등 및 세대갈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즉, 기성세대가 새로운 민주적 문화에 친숙해지고 새로운 세대가 민주적 이념과 태도로 무장하기도 전에 온갖 사회적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이는 자칫 요즘 구미에서와 마찬가지로 권위주의 정부로 회귀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정부의 지원이나 체계적 관심도 부족했던 상황에서도 주권적 민주화를 일궈낸 경험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난한 과정을 거친 것일 뿐 최선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가능하다면 정부도 힘을 보태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현 상황에서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민주시민교육을 빙자한 반민주적 교육이나 주관 단체의 이익단체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과거에 친정권적 관변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안보교육 등을 통해 느꼈던 부조리한 상황이 재연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즉, 민주시민교육의 이름으로 반민주적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아무런 성의 없는 내용으로 형식적 교육만 반복하면서 주관 단체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악용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는 그 자체로 반민주적 교육이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적절한 방식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마저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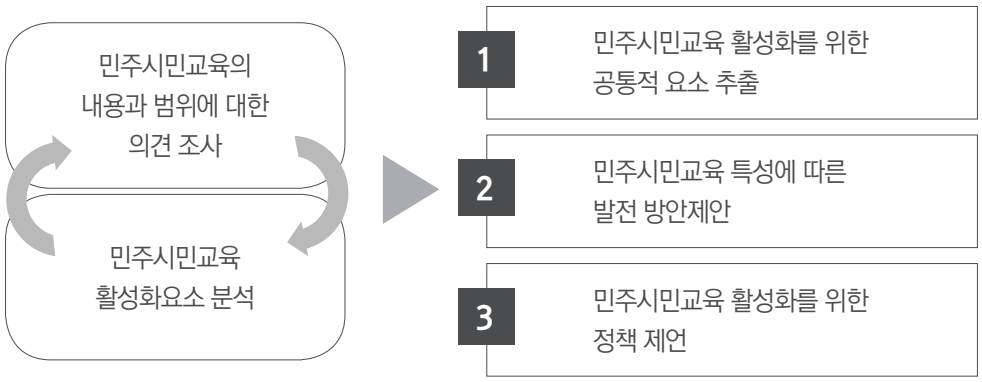
둘째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을 위한 노력이나 지원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실적으로 이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념적 스펙트럼은 물론이고 민주시민교육을 주관하는 단체와 프로

그램의 방향성 역시 다양한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합의는 이러한 혼선을 해소하는 데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의 적절성과 관련된 불필요한 이념적 논쟁을 해소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과제, 즉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하지만 곧바로 이러한 작업에 착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선 예전에 비해 훨씬 다양한 주체들이 수많은 유형의 민주시민교육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는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마중물로서 우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그들의 실제 생각을 탐색하고, 그를 기반으로 합의 가능한 시안을 제시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Ⅲ장). 이러한 시안은 이론적 · 실증적으로 추출된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지는 못한다. 하지만 현재 민주시민교육 관계자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의의 시작점으로서 의의는 충분히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앞선 논의에 비추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상태에서나마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담고자 한다. 실상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합의와 별개로 당장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시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현실을 방기하지 않고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제안을 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두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선 형식적인 차원에서 공통적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의 유형에 따른 활성화 요소를 제시하였다. 후자는 본론에서 다시 상술하겠지만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조사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유형에 따라 활성화 요소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에 기초한 제언이다. 특히 이것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자체 활성화 및 정책 제안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별도의 장으로 편성하여 설명하였다(Ⅳ장). 그리고 그에 기반하여 정책적 함의를 추출하여 제시하였고(Ⅴ장), 그에 따른 후속 연구 등을 제안하였다(Ⅵ장).



[그림 1] 연구의 개요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문화기술지(ethnography)를 사용하였다(Ⅱ장).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양적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이론적 배경이나 분석틀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그러한 배경과 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양적 연구를 하게 되면, 자칫 연구자의 예단에 따라 편향된 결과가 도출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연구결과를 함축하지 못하는 기술통계적 결과만이 생성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 방법, 특히 문화기술지를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계자들의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아울러 정책 제안 또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 다만 연구 지역은 여건상 서울로 한정되었으며, 연구진 외에 총 참여 인원은 심층면담 대상자로서 민주시민교육 진행자 및 참여자 18명, 초점집단연구 대상자로서 민주시민교육 관리자 11명이다. 연구 방법론 및 진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Ⅱ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형 분류 및 효과 분석, 그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범위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실태조사 분석 틀을 제안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첫째, 이 연구는 문화기술지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기능적이고 규격화되어 다소 기계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경향이 있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기술지를 통해서 추출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및 활성화 요소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계자들의 생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장친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일정한 패턴을 발견해낸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관점을 담고 있다. 이는 먼저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검증하는 양적 연구와 다른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보다 유의미한 논의 및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애초에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유형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요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각 유형에 맞는 더욱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각 유형에 따른 특성이나 활성화 방안 역시 먼저 분석틀이 전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연구였다면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형은 형식적으로 분류된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합의와 무관하게 언제든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장점을 지닌다. 즉, 이러한 유형 및 활성화 방안이 실증될 수 있기만 하다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합의와 무관하게 언제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의 부수적 효과이기는 하지만, 연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성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합

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 과정 자체가 합의를 위한 첫걸음이 된다는 점을 연구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면서 연구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가 민주시민교육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을 제공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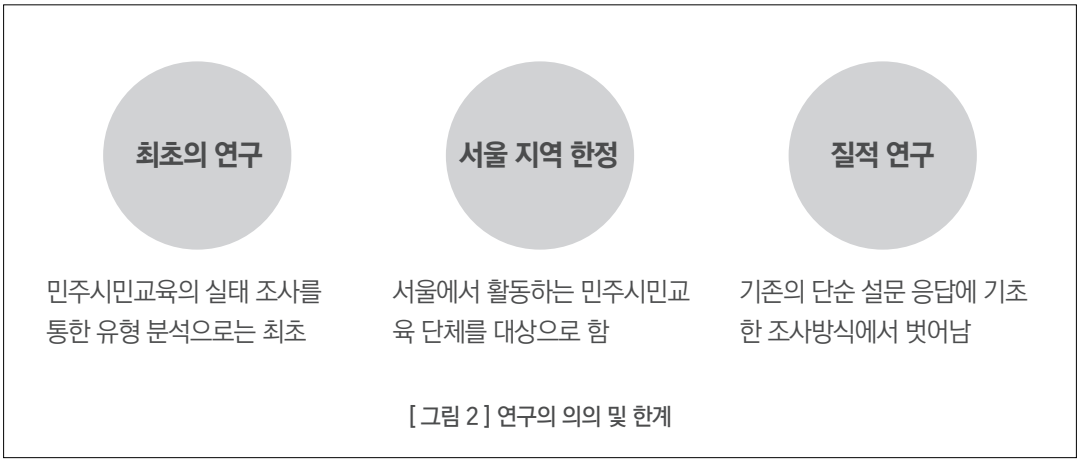
이러한 본 연구의 의의를 보다 더 잘 살리고, 민주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가 가진 한계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이 연구는 우선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적용상의 한계를 지닌다. 즉,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일반화한 것이 아니므로, 연구 결과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체로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관련자들을 심층면담 대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로 꼽을 수 있다. 물론, 이는 한편으로 연구 참여자 섭외 자체가 현재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관계자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일단 시안 및 분석틀이 마련된 이후에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미리 특정하지 않는 방식의 비교 집단 연구 등을 수행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정 지역, 즉 서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연구 한계로 꼽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시안 및 유형화 결과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또한 추가 연구를 통해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민주시민교육 유형 및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따른 내용적 요소가 충분히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런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따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아울러 내용적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적 함의는 축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해두고자 한다.



[그림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3. 선행연구 검토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한 단체들이 민주주의, 경제, 환경, 소비자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센터 등에서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동시에 관련 연구물의 수도 증가해왔다.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현황조사를 비롯하여 내용과 방법, 제도화를 주로 다루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규범적 논조로 진행되었고, 연구 주체의 의도와 목적이 반영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에서는 개념화를 통해 참여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을 강조한 이규영의 연구를 들 수 있고(이규영, 2005),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논의와 연계하여 시민의식 성장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김태준 외, 2003; 원미순·박혜숙, 2010). 심성보(2017)는 민주적 삶의 양식을 내면화한 교양시민인 공중 탄생의 관점에서 한국 시민교육과 평생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민주시민성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 연구는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규범적 결론 제시에 그치며, 객관적 근거 제시와 논리적 전개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들도 여러 수준에서 제시되었다. 현재 학교와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살펴보거나(고선규, 2014), 해외 학교 시민교육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김원태, 2006), 교수법에 중점을 둔 민주시민교육 방법과 실제에 대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신두철, 2015). 이 외에도 민주시민교육 방법론 및 프로그램 개발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허영식, 2005; 2011), 서울시와 한 대학의 시민학교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함으로써 효

과적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 연구(김재웅, 2018) 등도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자마다 각각 다른 개념 정의, 내용 및 방법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해외 사례들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셋째,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한국과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교육영역별, 대상별, 프로그램 형태별, 참여자 분포별 등으로 조사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연구(서울시립대, 2018), 2013-2018년까지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을 범주화하고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진 내용 및 주요 주제를 분석하여 연구들의 흐름 및 방향을 파악한 연구(현순인 외, 2019),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한 연구(김기현, 2010) 등이 있다.
교육 주체로서의 시민사회와 학습 주체로서의 시민사회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시민사회 발전과 민주시민교육의 상호관계를 파악한 연구도 존재한다(조철민, 2017). 민주시민교육의 개별 사례 연구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사례연구(신수연, 2008), 한국 YMCA의 실천가 전문성 연구(김미향, 2017), 참여연대 프로그램과 의미 연구(주은경, 2014), 대학 시민교육 현황과 개선과제를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연구(채진원 외, 2015), 지역 기반 시민 정치 교육 연구(김의영 외, 2018) 등이 포함된다. 민주시민교육 전체 현황 조사 연구와 개별 사례연구는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진행되었고, 대체로 현황조사를 통해 한계와 문제점을 발견하고, 발전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처럼 민주시민교육 현황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대부분 기계적 혹은 반복적 결론을 생산하거나 연구에 앞서 설정된 의도에 따른 예정된 결론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특정 영역 혹은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관점 및 목적에 근거하여 진행된 연구들이 있다. 평생교육 활성화의 관점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현순인 외, 2019),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양측의 관점에서 비교 및 평가를 통해 평생교육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연구(안승대, 2017) 등은 평생교육 활성화의 관점과 목적에 근거하여 진행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인성

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인성교육진흥법의 관점에서 인성과 시민성의 관계, 필요성 및 인지도 등을 분석한 연구(김현, 2015)가 있다.
경기도교육청 수준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 지수 조사 및 분석(경기도교육청, 2015; 2016; 2017; 2018), 민주인권친화도 조사(광주교육청, 2013; 2015; 2017), 민주시민교육 교원인식조사(전북교육청, 2019), 도민대상 교육프로그램 현황조사(송두범 외, 2017) 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조사이다. 이 외에도 '교육자'의 관점과 '학습자 혹은 참여자'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이 외에도 '교육자'의 관점과 '학습자 혹은 참여자'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교육자 관점에서의 연구에는 교사 전문성에 중점을 둔 연구(김미향, 2014), 초등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실천 유형 개발 및 분석(곽혜송 외, 2017) 등이 포함된다. 학습자 혹은 참여자 관점에서의 연구에는 지속가능한 지역활동 주체로서의 시민(전병혜, 2017), 시민교육의 주체로서의 학습자이자 시민이 이해한 시민교육의 의미 탐색(유승래 외, 2018), 평생교육 의식, 참여동기, 성과 분석(구주형 외, 2015)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평생교육, 교육청, 교육자 관점에서 접근한 민주시민교육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및 원칙, 내용 및 범위, 방법에 대한 합의나 공통된 인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게다가 다양한 관점(평생교육, 인성교육, 학교 및 지방정부 등)에 기반하여 목적(제도화, 조례 및 종합계획 제정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은 연구목적과 수단이 전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

다섯째,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와 관련된 연구이다. 중앙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제화 및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구축 과정을 탐색한 연구(정하윤, 2014),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 이전과 이후의 비교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을 제시한 연구(차명제, 2018)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화 연구 역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라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논리성 측면에서 다소간의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양적 확대와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주제로 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필요성을 강조하고, 현황조사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을 분

석하였다. 선행연구는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규범적 근거'를 제시할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기존 연구는 형식적이거나 이론적 틀에 맞추어 진행되면서 기능적이고, 규격화된 기계적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조사 및 유형화를 통해 효과를 분석하면서, 분석 틀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02. 연구 방법과 진행 과정

1. 연구방법

서론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관계자들의 생각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와 병행하여 역시 현재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주관 단체의 활동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양적 연구는 이미 주어진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연구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유형에 대한 시안, 즉 연구의 분석틀을 생성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이 아닌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문화기술지(ethnography)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부연하면, 문화기술지는 통상적으로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보다는 그 사회현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종규, 2006: 178). 또, 이러한 탐구를 위해 문화기술지에서는 "집단의 정신적 활동의 패턴(또는 의식, 관습적인 사회적 행동 혹은 규칙적인 패턴으로 묘사되는 것)을 찾고자 한다(Creswell, 2015: 119)." 이러한 문화기술지는 본 연구의 목적이 일차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 것과 더불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분석틀로서의 유형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문화기술지는 문화적 패턴을

발견하려는 목적을 지닌 연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론이어서 통상적으로 '참여 관찰'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순히 민주시민교육의 패턴을 발견하려는 것이 아니라 패턴에 따른 성공 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맥락에 따라 심층 면담과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기법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전체 연구에 참여하여 면담을 수행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연구대상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9명)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자 (9명)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관리자 (11명)

[그림 3] 연구 대상자

자료 수집 절차는 문화기술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스프래들리(J. Spradley)의 방법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술한 것처럼 참여 관찰이 아니라 심층 면담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문제가 상대적으로 분명했으므로 불필요한 사전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자료 조사 단계로 들어가 자료를 수집했다. 자료 수집 절차는 스프래들리의 세 가지 단계를 연구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였다. 스프래들리는 자료 수집 단계를 아래와 같이 분류했다.

[그림 4] 자료 수집 단계

이러한 전제하에서 먼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개략적으로 추출하여 예비조사 단계에 적용하였다. 이 단계는 원칙적으로 서술적 관찰이 이루어지는 단계이지만, 이를 토대로 집중 관찰을 위한 질의 문항을 개발해야 하므로, 작성된 문항에 국한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질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집중 관찰을 위한 문항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심층 면담을 수행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개발된 문항의 타당성 및 보충 요소에 대한 탐색을 위한 FGI를 수행하였다.
연구진들은 이렇게 개발된 문항을 이용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기준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관계자들의 범주적 의견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요소를 추출하는데 대체로 성공했다고 판단했지만, 영역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활성화 요인이 구별되는 맥락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이미 개발된 문항 외의 사안들에 대한 질문을 추가했고, 이후 면담에서는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선별적 질의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선별적 조사에 따른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 FGI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은 스프래들리의 방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했다. 스프래들리는 영역 분석, 분류 분석, 구성요소 분석, 문화 주제 분석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Spradley, 1980).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는 연구 주제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부분은 영역 분석 및 분류 분석만으로 충분하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형 분류 및 활성화 요소 추출 부분은 영역 분석, 분류 분석, 구성요소 분석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므로, 각각 이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그 외 연구윤리와 관련해서도 연구설계 및 연구실행 과정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기준에 대한 견해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요인을 탐색하는 것으로 윤리적 위험 요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과정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면담 대상자가 면담 과정에서 불쾌한 감정적 변화를 겪을 위험이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면담 대상자가 언제든 어떤 불이익 없이 면담을 중지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고

지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동의서를 교환하여 재차 면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할 것이며, 연구 자료 또한 연구자들 외에 접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관할 예정이다. 다만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3년, 개인 정보가 삭제된 자료는 5년 동안 연구책임자가 보관한 후 폐기할 것이다.

2. 연구 진행 과정

자료 수집 전에 연구진들이 먼저 문헌자료와 개인적 경험을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소들을 선정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주관단체, 구체적 주제 및 내용, 진행방식, 진행자/참여자 성향 및 관계, 공식적/개인적 효과, 운영 공간, 홍보 등이었으며, 이 문항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범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두 단체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예비조사를 통해서 문항을 조정한 후에 민주시민교육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질문항들 중에서 예비조사를 통해 주로 변경한 내용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부분이며, FGI에서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참여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이를 반영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질문 문항의 타당성을 양적 연구에서처럼 예비조사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는 종종 삼각구조화(triangulation) 기법을 사용하여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이 연구에서도 예비조사 자체가 민주시민교육 진행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했고,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FGI를 실시하여 질문 문항의 타당도를 측정하고자 했다.
역시 질적 연구의 특성상 질문 문항의 타당성이 이것들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비조사 및 FGI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미처 생각하지는 못했었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체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반구조화된 질문지가 작성되었다.

단체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이 단체에 언제,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단체와 비교할 때 이 단체 프로그램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참여자 / 진행자 관계
참여자들은 어떤 진행자(강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나요?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외에 개인적으로 모임을 갖는지요?

효과
기획 의도에 따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스스로 변화된 것이 있나요? (개인적으로)이익이 된 일이 있다면?

추가질문
민주주의 관점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학교에서 엎드려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림 5] 질문지 예시

이러한 질문 문항을 이용하여 총 18명의 민주시민교육 진행자와 참여자를 대상으로 1차 본 조사를 실시하였고, 영역 분석 결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민주시민교육의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유형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활성화 요인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면담 자료가 다수 수집되었다. 이에 연구진들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분류 분석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활성화 요인과 유형에 따른 활성화 요인을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질문항을 추가하여 2차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렇듯 추가된 요소의 작용 여부는 예비조사 및 1차 본 조사에 참여했던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질문하지 못했고, 이러한 추가 요소와 관련된 한에서 2차 본 조사도 예비조사

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러한 요소의 작동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활성화 요소에 대한 삼각구조화 확인을 위해 2차 FGI를 실시함과 더불어 전체 면담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 및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항은 보고서 뒤에 첨부한 《부록 2》와 《부록 3》에 수록되어 있다.

해당 설문을 활용한 심층면접 및 FGI 과정을 거쳐 모인 자료들을 토대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와 관련해서는 영역 분석과 분류 분석을,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영역 분석, 분류 분석,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III, IV 장에 서술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의 서술과 관련하여 한 가지 미리 밝혀 둘 점이 있다. 그것은 이러한 자료의 수집 및 서술이 정형화되지 않은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유로 면담의 내용을 그대로 전사할 경우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부득이하게 연구진이 면담 대상자의 대화 내용을 부분적으로 변형해서 수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다만 이는 독자를 위한 배려이지 연구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변형하더라도 면담 내용의 본래 취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석적 개입은 최대한 자제하고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수정했음을 밝혀 둔다.

03.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1.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둘러싼 혼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이론적, 실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주제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유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공화 민주주의'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한 이념에 기반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제시한다면, 이념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이유는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이 적용되는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가령 교육 내용만 하더라도 민주시민교육은 일상의 문제부터, 사회적, 국가적 문제 모두를 포괄한다. 나아가 그것은 주제 상으로도 민주주의의 실천과 관련된 절차, 요건, 정책, 문화, 태도 등을 포괄한다. 요컨대 다루어지는 주제 자체의 특성만으로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낼 수 없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범위와 관련된 이러한 혼란은 면담 상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민주주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면담 대상자들은 '평등, 권력 분산, 다양성 존중, 합의, 소외되지 않은 것, 소통, 과정, 관계가 파탄나지 않는 소통, 조율, 살기 좋은 세상' 등 매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물론 이러한 답변 중에 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요소

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없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때로는 서로 갈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만으로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통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연구진은 민주주의에 대한 면담 대상자의 입장을 좀 더 분명히 알아보기 위해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를 깨워야 하는지를 소재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학교에서 엎드려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상했던 것처럼 이에 대한 면담 대상자들의 답변은 상당히 엇갈리는 것이었다.

저는 처음에는 깨울 것 같아요. 깨우고요. 그 다음에 깨운 친구의 의사가 계속 자기를 원하면 그 다음부터는 터치를 안할 것 같아요.
-- K 프로그램 진행자

아이를 깨우지 않는 선생님은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역으로 드는 거죠.
-- C 프로그램 참여자

저는 자도록 내버려두자는 편이에요. ... 개인의 삶이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든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본인이 자는 게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주느냐 그걸 생각해 봤을 때 그건 다른 사람은 그냥 자나보나 그러고 그냥 자기 수업에 집중하면 될 것 같아서.
-- H 프로그램 진행자

[인터뷰 1]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혼란

이러한 혼란은 '시민'의 개념을 두고도 이어졌다. 시민의 개념과 관련하여 연구진이 던진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은 누가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불법체류자[1]도 시민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 F 프로그램 진행자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다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F 프로그램 참여자

그것은 다른 문제인데. ... 국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커다란 일 중에 하나는 국가가 나의 영토를 보존하는 것과 누구를 나의 시민으로 만들 것인가를 법으로 정하는 것... 이 규정을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자국의 시민을 누구를 규정할 것인가 여기까지가 우리의 시민이다, 여기서부터는 시민이 아니다... 그게 사실은 국가가 성립해야 하는 요소잖아요.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불법체류자를 시민으로 인정할 것인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될 것 같기는 한데...
-- J 프로그램 진행자

[인터뷰 2] 시민 개념에 대한 혼란

1. 인터뷰 진행 중 한 면담 대상자로부터 '불법 체류자' 라는 표현은 '미등록 체류자' 로 순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연구진의 경우 설문지 제작 전에 이를 고려하지 못하여 이미 인터뷰가 상당수 진행되었기에 여기에는 실제 사용된 설문지를 그대로 실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연구진 역시 그 의미와 취지에 동의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2.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에 관한 수렴가능성

하지만 이렇듯 엇갈리는 대답들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의 범위 및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최대한 넓게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주시민교육에는 인권, 인간 존엄성, 인간다움 등이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 F 프로그램 진행자

가족 관계, 마을 공동체, 민주적 소통 등의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어야 하는 배려나 태도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 F 프로그램 참여자

시민은 사실 서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서로의 배려와 예절, 그런 것들을 겸비한.. 겸비하기 위한 게 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교육들이 인권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준하느냐가 저는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떠한 담론을 만들어놓고 주입하는 식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 등을 보고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시민교육은 ....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부적 내용도 그렇고...
-- C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 3]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에 대한 넓은 인정

그런데 이렇듯 민주시민교육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반공 교육'이나 '꽃꽂이 교육'과 같은 것도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주의나 시민에 대한 물음에서 나타났던 것과 달리 이러한 견해차는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동일한 것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

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면담 대상자는 반공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

제가 생각하는 반공이라는 개념은 '어떤 특정한 게 맞다. 특정한 게 옳다'라고 교육을 하는 형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떤 사람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나는 빨갱이가 좋아요'라고 외치든 '나는 어떠어떠한 당이 좋아요' 그건 개인의 자유고 그걸 판단하는 것은 시민의 몫이지 그거를 교육하고 뭐가 맞고 어떻게 해야된다라고 그거를 교육을 한다는 주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들어요. 그건 개인이 판단할 문제고, 시민이 판단할 문제고, 사회가 판단할 문제지.

-- J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 4] 반공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없다는 의견

반면에 다른 면담 대상자는 안보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공이라는 것도 누가 보면 말도 안되는 거지만, 누가 보면 맞는 거고 논쟁의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반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흘러 왔고 이런 내용들을 품고 있다. 그리고 논쟁의 지점이 있고. 반대편에서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거를.. 그것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 저는 당연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E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 5] 반공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다는 의견

요컨대 교육 주관 단체, 또는 교육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이러한 교육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주제로도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참여자에게 특정한 입장을 강요하거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게 한다면 이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꽃꽂이 교육의 경우에도, 꽃꽂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면담 대상자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다.

아.. 취미활동을... 꽃꽂이 활동이나 이런 것이 본인의 취향을 더 세련되게 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배우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게 민주시민의... 민주시민의 덕성을 뭐라고 봐야 하고 그것에 교육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을 들어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취향공동체를 위한 교육 제공이라면 그게 공적으로 해야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 F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 6] 취미 활동이 민주시민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다만 꽃꽂이 교육을 소재로 해서 사회적 지향을 갖는 활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명시적으로 그런 활동을 지향하거나, 아니면 암묵적으로라도 그러한 지향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꽃꽂이 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의 자원봉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꽃꽂이 강사나 꽃꽂이를 배운 사람들이 장애인 시설에 같이 가서 그 분들의 원예치료 차원에서 같이 이거를 한다. 그거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우리끼리만 좋은 것 배우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이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게 도와준다 자존감도 회복하고 그런 과정이 설계가 되면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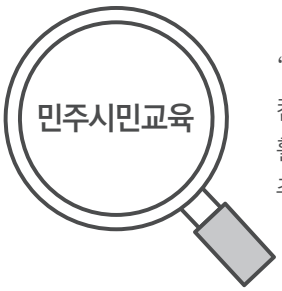
-- I 프로그램 진행자

꽃꽂이로 모였지만 다른 씨앗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음.. 근데 우리끼리만 할거야.. 우리끼리만 필요한 꽃을 사가지고 오래 쓸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꽃꽂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였는데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 G 프로그램 진행자

[인터뷰 7] 취미 활동을 민주시민교육에 포함하기 위한 근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면담 대상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하되, 교육 주관 단체나 진행자가 특정한 입장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강요하거나 그와 다른 입장을 지닌 사람을 비난하는 등 교육 참여자의 주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생각과 기타 민주주의 및 시민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제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교육 활동 자체가 절차적 민주성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생활정치를 포함한 정치 활동 또는 사회적 지향을 갖는 공익 활동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교육"

[그림 6]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규정

부연하면 민주시민교육은 우선 어의적으로 생활 정치를 포함한 민주적 정치 교육을 의미한다. 이를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 본다면, 민주시민교육은 교육 활동 자체가 절차적 민주성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생활정치를 포함한 정치 활동 또는 사회적 지향을 갖는 공익 활동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지향을 갖는 공익활동'이 의미하는 바는 한편으로 종교활동처럼 단순히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지향한다고 해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는 우리의 직관과, 다른 한편으로 꽃꽂이 교육을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이 마을가꾸기와 연결된다면 민주시민교육으로 볼 수 있다는 우리의 직관을 동시에 반영한 것이다.

또, 여기에 교육 활동 자체가 절차적 민주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단서가 필요한 이유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비민주적 교육까지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서가 민주시민교육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특정한 입장을 강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기준은 최대한 관용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 또한 주지할 필요가 있다.[2]

2. FGI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이처럼 형식적, 절차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비평이 제기된 바 있다. 연구진으로서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한데, 우선 하나는 실천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규정이 다양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 규정할 경우 그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민주주의가 절차주의를 부분적으로 함축하는 한에서 민주주의 및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형식적, 절차적 규정은 민주시민교육 내용 정의의 필수적 요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본문에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사회적 지향' 이나 '교육 활동의 절차적 민주성' 등이 실질적으로 함축하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비평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느슨한 정의는 아니라는 점을 부연해두고자 한다.

04.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요소

연구진들은 애초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주관 단체에 대한 신뢰도, 프로그램의 주제와 운영 방식, 진행자/참여자 관계, 다양한 효과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진행방식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활성화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실제로 심층 면담을 수행한 결과, 예상했던 요소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고, 아울러 진행방식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유형은 유형 그 자체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유형에 따라 활성화 요소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먼저 유형과 무관하게 추출된 민주시민교육의 공통적 활성화 요소들을 서술하고, 이후에 유형에 따른 활성화 요소들에 대한 해석은 별개의 절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1.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의 공통적 요소들

전술한 것처럼 연구진들은 무엇보다 프로그램 주제나 진행방식이 프로그램 활성화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런데 주제 자체나 진행방식이 프로그램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제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주제나 진행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참여를 안 하거나, 참여했다가도 중도에 그만두어 버리기 때문에 연구진으로서는 그런 사람 자체를 접하기 어려웠다.

"주제 자체가 지루한 프로그램은 인기가 없다... 참여자들이 제목과 주제를 보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주제와 프로그램 내용이 다르게 진행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B 프로그램 진행자

강의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통일에 관해서 북한 전문가가 오시면 우리가 얌전히 앉아서 듣기는 해야겠지만, 보통은 같이 참여하고 함께 나누는 방식.. (선생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에 만족하십니까?) 네 저는 만족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는 강좌는 제가 못돼서(웃음).
-- K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 8] 프로그램의 주제와 진행방식에 대한 의견

그렇더라도 프로그램의 전반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주제나 진행방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유형 및 특성과 관련된 부분이 많았으므로 다음 절에서 부분적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반면에 홍보나 운영 공간 등의 외적 요소는 프로그램 진행 및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지만, 진행 단체가 적절한 공간이나 홍보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면담 내용이 극적으로 대비되었다.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프로그램 진행자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다른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고, 그렇지 못한 진행자는 그로 인해 모임을 할 때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호소했다.

그거 되게 큰 것 같아요. 공간문제가,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으면 오는 데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위치라든가.... 대관료가 없는 것만 해도. ... 저는 마을에서 공동체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엄마들 하고 같이 교육을 받거나 뭔가 아이들하고 활동을 계획해서 하고 하는데 공동체 지원금이라고 해서 100만원 200만원을 연간 쓰거든요. 근데 그걸로 대관료를 내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 H 프로그램 참여자

계속 임대료가 높아져서 올해 말 되면 여기 접으실 거래요... OO에도 협동조합 마을 카페가 있는데 어려워요. 공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요. 공간 유지비를 어떻게든 벌어내기 위해서 막 물 속의 백조발처럼 계속 노력을 해야 하죠.

-- F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 9] 프로그램의 외적 요소(공간 유지)에 대한 의견

모집하는 거 상당히 어려워요. ... 사람 모집하는 거 되게 어렵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 몇 번 관계 맺었던 선생님들 통해서 ... 전달되는 거지. ...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진짜 어려운 측면이 있죠.

-- K 프로그램 진행자

저희야 지금 간절히 2년째 바라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학교에 어떻게 수업을 나갈 수 있는지 라든지. 그런 교육을 받아야되는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있을 것만 같은데 왜 매칭이 안될까. 매칭도 그렇고 저희는 계속 정말 쌩으로 전화를 돌리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은 7, 8월에 예산이 들어가면은 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데 이미 뭐 예산이 끝났다. 그러면 내년을 위해서 뭐 10월에 연락을 하면 또 내년 3월에 연락해라. 그러면 3월에 연락하면 또 이번 예산은 끝났다.

-- J 프로그램 진행자

[인터뷰 10] 프로그램의 외적 요소(홍보 수단)에 대한 의견

프로그램 진행자 특성 및 진행자/참여자 관계는 프로그램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진행자 특성과 관련된 일반적 요구나 관리자 입장에서 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한 부분만 적시해두고자 한다.

(참여자들이 어떤 진행자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는 공감을 많이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공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잘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한 명이 너무 쏠리지 않게 한다거나 또 이제 쓸 데 없는 소리에 대해 끊지 않는 경우, 무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사실 예의바른 게.. 예의바르다는 게... 반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선수범한다거나 약속에 대해서 지키는 것을 보여준다거나...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배어있는 친구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칭찬을 좀 많이 해요. 참가자들이. 너무 저 사람 때문에 좋았다. 진행하시는 분 잘한다. 그리고 결과를 잘 도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길다는 얘기가 있고 자기 얘기를 잘 끄집어내서 본인 사례를 되게... 사실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자기가 겪었던 그런 억울한 사례가 사람들이 공감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잘 이끌어내는 친구가 있어요.
-- E 프로그램 진행자

퍼실교육 같은 것도... 좀 여기서 펀딩을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퍼실 강사 섭외가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 I 프로그램 진행자

[인터뷰 11] 강사 확보의 어려움

참여자/참여자 관계 역시 프로그램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민주시민교육에 고유한 특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다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프로그램 참여자들 간에 비공식적인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더 조사될 필요가 있겠지만, 참여자들이 비공식적 모임을 통해 본인들의 개인적 문제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어떤 강연자의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다양하게 모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그 활동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면 어떤 분에게는 별도로 따로 좀 만나고 싶다해서 그 분이 활동하는 곳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은 것을 좀 배우게 돼서 그렇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얘기들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전했어요.
-- C 프로그램 참여자

토론지도사들과 따로 모임을 하고 있어요. 000연구회라고 제가 교육연구하는 000라고 개인단체를 사업자를 냈거든요. 거기서 토론이랑 토론을 활용한 교육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토론양성자 과정 거친 사람들. 그 분들은 그 단체가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요. 제가 올해도 서울시교육청 사업 하나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가서 수업하실 거거든요. 진로에 관한 책하고 영화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는.
-- K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 12] 비공식적 모임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면담 대상자였던 프로그램 진행자와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프로그램 참여 결과로 자격증이 주어지거나, 스펙으로 활용할 수 있거나, 그 효과가 반드시 가시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친분관계를 형성하거나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등의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과를 감지할 수 있을 경우에 참여 정도 및 참여 의지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진술했다.

이것이 연구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프로그램 참여자의 개인적 이해관심의 충족과 연관이 있는지, 또 설령 그러한 연관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주요 동기가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개인적 이해관심의 충족 여부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활성화 요소가 아닐까 한다.

대학생들 참석자들이 높은 아카데미는 뭔가 공식 수료증을 주는 곳 있잖아요. 그걸 보고 가는 경우도 높은 곳이었던 것이고, 저도 그런 곳에 참석했었어요. … 공신력이라고 하기 보다는 자소서에 쓸 수 있는, 입사지원서에 쓸 수 있는 뭔가 나눠주는 곳… 사실 그 때 당시에는 반비례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진짜 좋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뭔가는 쓸모가 없고, 쓸모 있는 것을 주는 곳에서는 내용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 (퍼실로 활동했던 경험이 개인의 이력에 도움이 된 게 있었나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취업준비를 하다보면 토론도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토론동아리 같은 것 하긴 했었지만, 이 경험이 입사시험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 E 프로그램 참여자

(이수증 같은 것을 주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의미가 있는 것 같나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르신들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엄청 다르신 것 같아요. ··· 저거 주실 때는 구청장님 오시고 의전하고 꽃다발 주시고 자 이제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 어르신들 이렇게 보니까 ···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뭔가 인정받는 느낌, 어 뭔가 나도 할 수 있는 느낌 가지시는 것 같아요. … 요즘 애들은 상장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어르신들, 저희 어렸을 때는 상장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은 아니었는데 요즘 와서 많이 받으니까 행복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G 프로그램 진행자

[인터뷰 13] 개인적 이해관심 충족의 중요성

2. 민주시민교육 유형 및 특성에 따른 활성화 요소들

실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연구진이 분석의 틀을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애초에 연구진은 강의식, 토론식, 활동식 등으로 대별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실제로 면담을 진행해 본 결과, 전술한 것처럼 주제나 진행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지 않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가령 강의식으로 진행한다 해도 강의를 잘하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활동식으로 진행한다 해도 활동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제나 진행방식의 효과를 단독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흥미로웠던 점은 면담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특정한 진행 방식을 선호하거나 특정한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 대상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유사한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참여자들이 이러한 관계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다가왔다. 이에 연구진들은 주관단체 및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과 프로그램의 주제를 두 축으로 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각 유형에 특징적인 프로그램 활성화 요소를 연결시켰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분류 분석 과정을 먼저 설명해야 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그램 유형을 먼저 다음과 같이 표로 제시해두고자 한다.[3]

그런데 FGI 과정에서 이러한 유형 분류 기준은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주시민교육의 분류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평이 있었다. 이러한 비평은 그 자체로 타당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유형을 분류한 이유는 민주시민교육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

3. FGI 과정에서 이러한 유형 분류 기준은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주시민교육의 분류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평이 있었다. 이러한 비평은 그 자체로 타당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유형을 분류한 이유는 민주시민교육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류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특성을 찾고자 한 것이지 민주시민교육 자체의 내용과 형태를 모두 분석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류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특성을 찾고자 한 것이지 민주시민교육 자체의 내용과 형태를 모두 분석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이와 더불어 예시가 되지 않아서 유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면담에 응한 단체나 대상자를 밝히는 것은 익명 처리를 전제한 연구 윤리에 위배되므로, 면담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공개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예시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여기에 예시된 단체 및 프로그램 관련자들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공개된 자료를 이용한 것일 뿐임을 밝혀둔다.

표 1.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분류

주제 / 초점	사회적	개인적
의제	**유형 1** – 전문성 확보 예) 참여연대 '행동하는 시민과 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학교'[4]	**유형 2** – 관심 또는 의미의 공유 예) 참여연대 '기타 교실'[5]
관계	**유형 3** – 민주적 지도자 확보 예) 허스토리마실협동조합 '여성사 강사 양성' 및 '마실 정기답사' 등[6]	**유형 4** – 공동의 산출 결과 예) 성북구청 '찾아가는 골목회의'[7]
활동	**유형 5** – 운영진 기획력 예)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결[8]	**유형 6** – 운영진에 대한 인격적 신뢰 예) 극단 작은곰 '우리 동네에서 연극을 만나다'[9]

4. http://academy.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lectures&search_target=tag&search_keyword=민주주의&document_srl=25094 (2019. 12. 16.)
5. 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 (2019. 11. 19.)
6. https://cafe.naver.com/motherpower?iframe_url=/ArticleRead.nhn%3Fclubid=12196402%26page=1%26menuid=40%26boardtype=L%26articleid=2534%26referrerAllArticles=false (2019. 12. 16.)
7. https://cafe.naver.com/motherpower?iframe_url=/ArticleRead.nhn%3Fclubid=12196402%26page=1%26menuid=40%26boardtype=L%26articleid=2534%26referrerAllArticles=false (2019. 12. 16.)
8. https://kdeside.tistory.com/1 (2019. 12. 16.)
9. https://www.facebook.com/20161129jagunkom/photos/rpp.124423624781512/549706072253263/?type=3&theater (2019. 12. 16.)

먼저 가로축을 이루는 프로그램 주제에 대해 설명하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에서 의외로 개인적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가령 참여연대 아카데미에는 '자기재생을 위한 춤워크숍', '기타교실 맞춤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조사 대상 중에도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의 모임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주제를 축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을 모두 민주시민교육의 범주에서 배제할 수도 있겠지만, 전술한 것처럼 시민단체에서 운영하거나, 활동가들의 모임이라는 점, 또는 사회적 지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무작정 민주시민교육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면에서 연구진은 일단 민주시민교육의 주제를 사회적, 개인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의 특성이 달라지는지, 또 그러한 특성의 차이가 여전히 민주시민교육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를 탐색해 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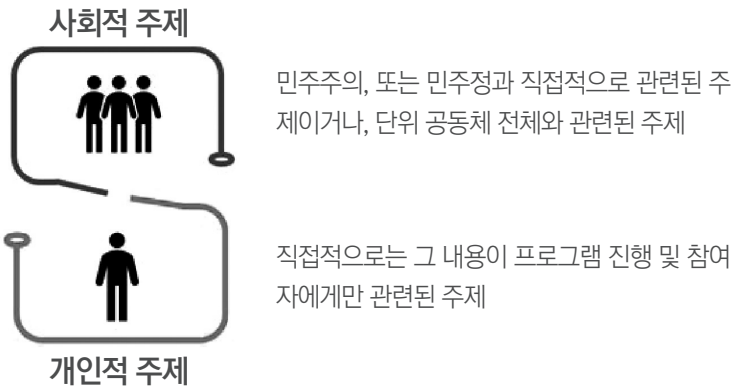
그런데 직관적으로는 분명하지만 이론적, 실천적으로는 사회적 주제와 개인적 주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전술한 것처럼 춤워크샵이나 기타교실 등은 상대적으로 분명하지만, 예를 들어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자원봉사자의 모임 등은 사회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개인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모임을 개인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분류했는데, 그 이유는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이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와 시민성을 연계지어가지고, 자원봉사가 시민으로서의 활동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공공성, 자발성, 호혜성, 무보수성 관련해서 자원봉사 기본원칙이거든요. 기본원칙과 시민성과 연계지어서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활동으로서 어떤 사회적 영향을 가지고 있고, 자원봉사자 활동이 시민활동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자원봉사자들한테 이해시키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역량 강화가 되는 것이죠.

-- |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 14] 개인적 주제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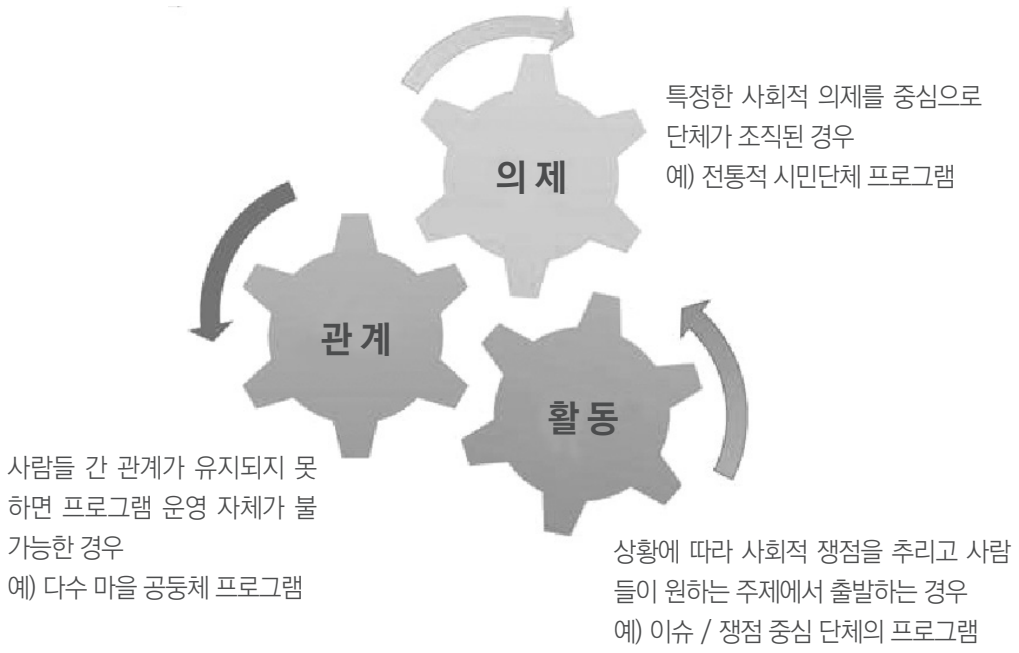
이러한 범례를 토대로 사회적 주제와 개인적 주제를 구분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정의가 가능하다.



[그림 7] 민주시민교육의 분류 기준 : 주제

그런데 사회적 주제와 개인적 주제에 대한 이러한 분류는 이러한 분류의 적실성에 대한 검토 외에 한 가지 더 혼동스러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것은 3절에서 서술했던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범주와 관련된 것으로, 자칫하면 사회적 주제를 다루면 민주시민교육의 범주에 포함되고, 개인적 주제를 다루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잘못된 것으로, 예를 들어 반공 교육은 사회적 주제를 다루지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없으며, 3절에서 서술되었던 것처럼 맥락에 따라서는 개인적 주제를 다루는 교육도 얼마든지 민주시민교육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요컨대 여기에서 사회적 주제와 개인적 주제를 구분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지 민주시민교육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실히 해두고자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다른 한 기준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주관 단체, 또는 프로그램이 무슨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대체로 사회적 주제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은 그러한 단체들이 특정한 사회적 의제에 관심이 많은 상태로 결성, 발전 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마을공동체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의제보다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거기에서는 무엇보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 의제를 다루더라도 특정한 의제에 꾸준히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사회적 쟁점을 추려내어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거나, 또 단순히 사람들이 원하는 주제에서 출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의제나 관계보다 활동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경우로 분류했다.



[그림 8] 민주시민교육의 분류 기준 : 초점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앞의 표에서 제시된 6가지 유형을 분류하였고, 면담 자료를 토대로 그에 따른 활성화 요인을 추출하였다. 물론 이러한 6가지 유형과 활성화 요인이 한 번에 추출된 것은 아니고, 롤즈(J. Rawls)식 성찰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의 방법을 활용했다. 즉, 유형을 분류하고 그러한 유형의 특성이 면담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다시 유형을 변경하여 그것을 자료와 대조하여 유형과 자료가 일치할 때까지 반복했다.

이러한 분류 분석 과정에 기반하여 개별 유형과 관련된 자료를 재검토하는 구조 분석 과정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각 유형에 특징적인 활성화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유형1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유형1	사회적 주제	의제 중점
특성	구체적인 민주적 결과를 성취하는 데에 관심이 많으므로, 유능하며 활동가능한 전문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활성화 요인	전문성 확보 참여자들 중에 예비 활동가들이 많으므로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요구하게 된다.	
인터뷰 내용	만족도에 가장 큰 요인인가요? 강사. 강사의 어떤 부분?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문가. 정말 이 사람은 전문가다. 전문성을 상당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 꼭꼭 씹어 가지고 자기 이야기 하듯이 사례를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깊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쉽게 전달해주니까… -- K 프로그램 진행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부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하는데… 어떤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좋을까. 프로그램 내용이나 강의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교육을 추천해줘가지고… 일단 프로그램이 좋았었거든요. … 기초 이론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기획안을 쓴다거나 … 피드백을 해준다거나… 필요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다 받고… -- B 프로그램 참여자	

표 3. 유형2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유형2	개인적 주제	의제 중점
특성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결과 성취에 대한 지향은 뚜렷하지만, 참여자들은 대체로 전문가가 아니며, 또 반드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없다. 다만 진행자들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관심은 이미 폭넓게 공유하고 있다.	
활성화 요인	관심, 또는 의미의 공유 - 전문가들의 활동을 후원하거나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므로, 전문성에 대한 강조보다는 프로그램 운영 단체의 지향점이나 그러한 활동 자체의 의미를 공유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인터뷰 내용	자원봉사는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뒤치닥거리만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도개선까지 정책에 참여까지 해야하는 거 아니냐 이런 토론들을. --- 프로그램 진행자 공공성, 자발성, 호혜성, 무보수성 관련해서 자원봉사 기본원칙이거든요. 기본원칙과 시민성과 연계지어서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활동으로서 어떤 사회적 영향을 가지고 있고, 자원봉사자 활동이 시민활동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자원봉사자들한테 이해시키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 프로그램 참여자	

표 4. 유형3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유형3	사회적 주제	관계 중점
특성	민주적 지향과 무관하게 지역민이나 학부모라는 사회적 요소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체로 초기에는 민주적 지향에 이르게 하는 데에 필요한 민주적 의지와 리더십을 지닌 사람에 의해 민주적 지향을 갖게 된다.	
활성화 요인	민주적 지도자 확보 - 일반적으로 이러한 헌신적인 지도자가 많지 않으므로 일정 단계를 지나면 지도자의 소진으로 인해 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퍼실리테이터 과정을 열었다. 작년에는 활동가들만 왔지만, 올해는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여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였다. 공론장 활성화와 더불어 촉진가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H 프로그램 진행자 그렇게 변화를 실제로 모든 사람이 그런 민주시민적 함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그렇다고 하면 그걸 촉진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야겠구나. 그런 촉진자들이 많아지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촉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많아지면은 좋겠다. -- D 프로그램 진행자	

표 5. 유형4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유형4	개인적 주제	관계 중점
특성	유형 3과 상황을 공유하지만, 아직 민주적 관심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적 지향을 갖게 하는 단계에 있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활성화 요인	공동의 산출 결과 - 민주적 관심이 공유되지 않았으므로, 민주적 지향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공동의 산출 결과를 통해 그 실효성을 공유하는 방식이 성공적인 경우가 많다.	
인터뷰 내용	참여하신 분들도 다 보면 여기는 아파트 국토교통부랑 같이 아파트분쟁을 주로 다루는 건데요. (우리 지역에도) 아파트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보면 층간소음. 이라든가 이슈가 있어요. 반려견 문제. 흡연. 이런 문제들이 주로 있거든요. 보니까 지난 번에 오셨을 때도 분쟁의 당사자이신 분들이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디에 호소해야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 G 프로그램 진행자 비영리활동가들의 공부 모임이라고 했고... 같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대화한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 참여했을 때는 운영진이 있었고 그 운영진들이 커리큘럼을 만드셨어요. ... 1기가 처음에는 8회를 약속하고 했었는데 15회나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2기를 모집할 때는... 어떤 주제에 따라서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1기 2기 참여하다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 3기 때부터는... 다양하게 모인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의 활동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면 어떤 분에게는 별외로 따로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그 분이 활동하는 곳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 이번에는 그러면 직접 운영해보는 것에... 참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 C 프로그램 참여자	

표 6. 유형5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유형5	사회적 주제	활동 중점
특성	넓게 보면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민주적 지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적 쟁점 토론이나 공정 선거 운동에서 보이는 것처럼, 민주적 근본 원칙, 문화 등의 활성화에 관심이 많다.	
활성화 요인	운영진 기획력 -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가변적이므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의제, 활동 방식 등이 중요하다.	
인터뷰 내용	첫 번째로 … 가장 많이 집중됐던 것은 공론장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문제가 무엇일까 어떻게 할까 토론하고 숙의해서 그 결과를 우리 사회에 알려내는 것 … 두 번째, … 가장 목소리가 작은 세대 2030대에 집중해서 해보자 해서 … 마지막 세번째가 이제 우리 사회 혁신과 미래 담론이 필요하다 해서 스타트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 (다른 진행자) 그 분은 설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설계를 쟁점을 세울 것이냐 합의를 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선순위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낼 것이냐. 몇 가지 틀을 저희가 작년부터 잡고 하거든요… 저희는 온라인 핸드폰으로 당일 투표를 많이 하게 하거든요. …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 … 그걸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러다 보니 발제자도 그거에 맞게 섭외에 많이 신경을 써요.. -- E 프로그램 진행자	

표 7. 유형6의 특성과 활성화 요인

유형6	개인적 주제	활동 중점
특성	민주시민교육보다는 관련 주제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활성화 요인	운영진에 대한 인격적 신뢰 - 참여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셈이므로, 운영진에 대한 인격적 믿음이 일차적 관건이 된다. 그러한 요소가 충족된다면 유형 2, 4 등과 유사한 관정을 밟게 될 것이다.	
인터뷰 내용	모이기는 하는데 그 사람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것은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 그게 많이 좌우하더라고요. 일단 공간을 얼마나 따뜻하게 준비를 하고, 참가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환영하는지를 문 앞에서부터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여러가지 배려들이 있거든요. 뭐 차나 다과를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공간에 이름표를 배치한다든가 오기 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나 카톡을 통해 안내를 한다든가 그리고 보통 인권감수성 교육이라고 요즘 많이들 하는데 그런 것에 굉장히 섬세하게 발달을 한 분이어서 이 안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대화나 서로에 대한 이런 이야기나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거칠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정서나 이런 것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환기를 해주세요. 그런 것에서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 배려를 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내용 이상의 신뢰감이나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리더가 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런 분들이 다 그 리더를 보고 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이래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 F 프로그램 참여자	

05. 정책적 함의

Ⅱ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면담 질문지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에 어떤 지원을 바라는지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 매우 다양한 답변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답변들은 제시된 그대로는 정책화할 수 없는 즉자적인 요구의 형태로 구술된 것이 많아서, 연구진에서 이를 기초로 의견을 더하여 더 일반화된 형태로 정책적 함의를 추출하여 보았다.

1. 정책적 함의 추출의 전제 :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적 반응성

연구진은 정책적 함의 추출의 전제로서 정치적 중립성(political neutrality)과 정책적 반응성(policy responsiveness)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선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이유는 3절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민주주의 및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너무 좁은 범위에서 실행하면,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의 자체가 최대한 폭넓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 시민교육의 현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1987년 민주화 이후 한편에선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른 한편에선 자신들의 대중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저마다 다종다기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시민교육이 이처럼 시민단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가령 선거연수원이나 통일교육원 등과 같은 공공기관들에서도 유권자 교육이나 통일교육과 같이 민주시민교육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해왔다. 또, 관변단체들에 의해 일정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입장에 따라서는 정부나 관변단체에 의한 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민주시민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 자체가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 최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사례는 참고할만하다. 1952년 독일 내무부 산하의 국가기관으로 설립된 연방정치교육원은 독일 전역에서 시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교육단체나 교육내용을 가리지 않고 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라 함은 보이텔스바흐 합의 준수와 투명한 예산 집행이다. 먼저, 연방정치교육원 예산은 자체사업과 협력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에 약 4:6 가량의 비율로 집행되는데 공공재정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행사보고서, 예산지출내역, 통계자료 등의 제출을 통해 지원된 재정의 합당한 사용여부를 평가받는다.

재정지원을 한 연방정치교육원 역시 연방회계청에 그 재정지원내역을 보고함으로써 투명성과 중립성을 유지한다(권진욱 외, 2016: 49-51).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의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방법론적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1976년 제시된 것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심성보 외, 2018 참고).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세 가지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 내용을 강요/주입하지 않는 것(교화금지), 논쟁적인 것을 논쟁적인 것으로 드러내는 것(논쟁성 재현), 학습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학습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이해관심 지향)을 말한다.

연방정치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는 시민사회단체나 정치재단들이 각자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관점들을 드러낼 수 있되 강요하지 않으면 즉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부합한 교육 활동을 하면 보수든 진보든 교육단체와 교육내용의 정치적 성향을 가리지 않고 지

원한다.
물론 헌법이나 여러 국제인권협약과 같은 곳에 명시된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그러한 교육을 하는 단체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중립성 원칙에 기반하여 정치정당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포함한 여러 민주시민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외연과 내포가 더욱 확장되고 깊어지며 활성화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정책적 반응성이 필요한 이유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및 운영 주체의 사정에 따라 각각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상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Ⅳ장에서 예시되었던 것처럼 가령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홍보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공간이나 홍보수단과 관련된 요구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에서는 공간이나 홍보 수단의 확보가 프로그램의 존폐를 결정하는 핵심적 사안이다. 인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곳에서는 행정업무를 처리해줄 사람을 요청하고, 어떤 곳에서는 강사나 강사비 지원을 요청한다. 구체적으로 구술된 것은 아니지만 활동가의 소진으로 인하여 아예 함께 활동할 사람을 바라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직된 지원만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곳에서는 인력과 예산이 남아돌지만 다른 곳은 여전히 프로그램의 존폐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3~4곳에 신청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서류 처리를 해야 함으로써 정작 프로그램 진행 자체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2. 정책 집행 기구에 대한 선결 과제

이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적 반응성을 고려할 때,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정책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정책은 시행 주체에 따라서 집행의 방식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집행 주체에 대한 논의없이 정책만을 제시한다면, 본의와 다른 결과가 얻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본 연구진은 이러한 정책 집행의 주체로서 정부와 민간을 이어주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주시민교육 진행 단체들의 자율적인 연합 기구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수행되고 있기도 하지만 민관중간지원조직은 정치적 중립성 및 정책적 반응성을 담보하기 위한 몇 가지 강점을 갖고 있다. 이야기가 잠깐 돌아가지만, 정치적 중립성은 산술적 중간과 달리 중립적인 지점을 발견하여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적 입장이나 판단은 항상 어느 정도 편향성을 지닐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은 편향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기구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면, 그것은 항상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 기구 자체에 다종다양한 입장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기구가 어떤 특정한 입장을 지닌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간지원조직은 대체로 그 구성원이 정권을 획득한 특정 정파에 의해서 임명되지만, 임명된 이후에는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지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에는 항상 전 정권에 친화적인 사람이 남아 있게 되고, 그런 면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정책적 반응성과 관련해서도 중간지원조직은 상당한 강점을 지닌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령 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탐색하고 지원 서류 및 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그러면서도 직접적으로는 프로그램 진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국

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원이 아무런 행정 절차나 결과 보고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면,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행해 줄 사람이나 조직이 필요하고 정부에 비해 경직성이 덜한 중간지원조직이 이러한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간지원조직 역시 설령 간접적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나아가 중간지원조직 자체가 중립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정책적 지원의 주체라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 주관 단체에 비해 권력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진행 단체들의 자율적인 연합 기구는 무엇보다 중간지원조직의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며, 또 지나치게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될 수 있는 시행 주체들의 요구를 정책적 수준으로 수렴하여 중간지원조직이나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본 연구진이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 진행 단체들의 자율적인 연합 모임의 주요한 기능은 그 이상이다. 전술한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이견은 적어도 당분간 결코 수그러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단체의 민주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는 연합 모임에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나 판정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 및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중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정책적 집행을 상당히 수월하게 해줄 수 있다. 그 외에도 연합 모임은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및 홍보, 연계 등과 관련해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내용적으로 그것은 다음 절과 연결되므로 거기에서 더 상세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3. 정책적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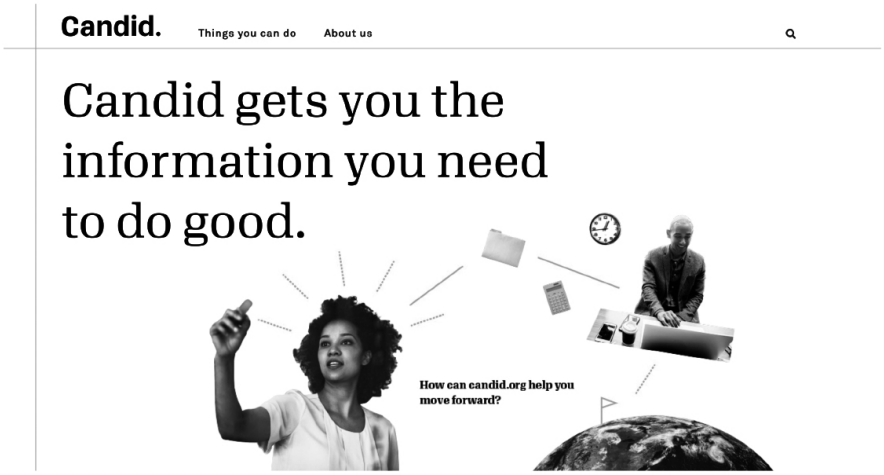
이하에서는 두 차례의 집담회와 수차례 진행된 개별 면담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 관계자들이 제기한 요구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뤄져야 할 몇 가지 정책적 변화들을 제시하였다. 민주시민교육 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정부와 민간을 이어주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주시민교육 진행 단체들의 자율적인 연합 기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의미를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들을 재배열해 보았다.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이나 연합기구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역할 구분과 정책 실행의 방향을 가지고 가야한다는 의미에서 정책 집행 기구와 정책 과제들을 구분해 제시해 보았다.

가. 중간지원조직 관련 정책들

무엇보다 민주시민교육의 물적 조건들과 관련된 지원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물적 지원은 프로그램 주관단체의 필요에 부합하는 유연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면담의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는 안정적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공간 확보 등을 포함한다. 또한, 진행 중인 혹은 이미 진행하였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의 정보를 보다 손쉽게 살필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 구축의 작업도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 정보화 사업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자나 참여자 모두를 위한 것으로 운영자들에게는 유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평가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고 또 참여자들에게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선택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과 비영리기구들의 사회공익활동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캔디드(candid.org)는 참고할 만하다.

2019년 2월 1일 기존의 파운데이션 센터(Foundation Center)와 가이드스타(GuideStar)가

병합하여 만든 이 웹사이트는 사회 양극화, 기후 위기, 정보통신기술 혁명, 빈곤, 불평등과 같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개인이나 비영리기구들이 적절한 대응과 변화들을 꾀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영리기구들의 정보와 소식이라든지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재정지원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비영리기구의 설립이나 기금모금방법 등과 같은 조직운영의 방식 등에 대한 교육적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비영리활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물들을 생산하여 배포하고 있는데 일례로 가장 최근에는 평화와 안보를 위한 재정지원 체계에 대한 연구물을 내놓았다.



[그림 9] 캔디드 웹사이트

중간지원조직이 수행해야 할 정책에는 물론 연합 기구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연합 기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위에서 말한 다양한 물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지원은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강사나 홍보와 관련된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가령 마을공동체 활동 같은 경우는 특별한 홍보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마을공동체의 특성상 일정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중간지원조직은 그처럼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특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간접 지원 정도로 그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아울러 강사의 지원과 관련해서도, 가령 강사와 강사비를 함께 지원하게 되면 프로그램 진행 주체로서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강사도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진다. 따라서 강사의 지원 같은 경우는 적정 수준의 강사비를 지원하거나 강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지원을 하는 수준에 그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간지원조직이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종보고회에서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처럼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 연합 기구를 통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연합 기구는 주관 단체들의 조직이므로 이러한 조직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는 동인이 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중간지원조직이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연합 기구 소속과 무관하게 새로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연합 기구에 소속되지 않은 민주시민교육의 가능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연합 기구 자체가 기성 단체들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도 견제할 수 있다.

연합 기구

민주시민교육 직접 지원 및 자정, 정부 관련 의제 생성
- 공간 정보 및 인력, 홍보 지원 수단 확보
-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민주시민교육 연계 활동 강화 : 연계 프로그램 연결, 주관 단체 교육 확대
- 민주시민교육 행정 지원 방안 건의, 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및 운영

[그림 10]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나. 연합 기구 활동 관련 정책들

연합 기구는 기본적으로 여러 현장에서 벌어지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일상적인 경험들을 공유하며 중간지원조직 등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수렴해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연구진은 연합 기구가 단순히 일상 공유를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공간 문제, 강의 인력 확보, 홍보 등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연합 기구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해결의 적극적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든다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개별 강사나 특정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악용하거나 진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 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 진행에 정부나 공권력이 관여하게 되면, 이는 다시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필요하고 연합 기구가 그러한 주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합 기구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나타는 문제를 성찰하고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적극적 협력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것은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이 결코 어느 한 두 단체의 프로그램에 의해 오롯이 충족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운영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은 보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운영될 필요와 관련 있다. 요컨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간의 유기성을 확보하는데 연합 기구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물론 한 단체 내에서 여러 상이한 수준, 내용, 방법을 갖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어떤 주제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과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에 변화를 꾀하는 보다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을 수준별로 나누어 시즌제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단체 내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장기간에 걸쳐 동시에 운영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연

합기구의 지원 속에서 유관 단체들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에서 (중)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6세–17세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국가 시민 서비스'(National Citizen Service) 프로그램은 좋은 예이다[10]. 지역 내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주로 여름과 가을에 각각 약 한 달가량 진행되는 이 시민교육 서비스는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집을 떠나 외지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모여 더불어 사는 삶의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 2) 미래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3)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사회적 행동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개인적 주제와 사회적 주제를 아우르는 또 의제중심, 관계중심, 활동중심 프로그램들이 두루 녹아들어 있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여러 비영리기구들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2009년 158명의 학생들이 예비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래 참여자의 수는 해마다 급증하여 현재는 매년 약 1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다.

중간지원조직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물적 지원, 자율적 연합 기구 지원

- 공간 지원
- 정보화 사업 지원
- 강사, 홍보 등은 간접 지원

[그림 11] 연합 기구의 역할

10. 이하의 국가 시민 서비스 내용은 홈페이지(https://wearencs.com) 참고.

06. 요약 및 후속 연구 제언

1. 연구 요약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고 일상생활 곳곳에 확산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어왔다. 특히 2016-17년 대통령 탄핵 과정 속에서 민주적 가치나 태도 그리고 기술을 두루 갖춘 민주시민의 필요와 중요성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결과 2017년 출범한 현 정부는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더 최근인 2019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선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언제라도 과거로 퇴행하고 되돌아갈 수" 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밭에 내리쬐는 햇볕이고 단비"가 될 민주시민교육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은 그 내용과 범위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없이 개별적이거나 때로는 민주시민교육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자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하고 시행하는 또 지원하고 참여하는 여러 단체, 기관, 그리고 개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오늘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럼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요소들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진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다종다기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할 기존의 명확한 이론적, 방법론적 틀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양적 연구는 자칫 연구자의 예단에 따라 편향된 결과가 도출되거나 아니면 기술

통계적 결과만을 보여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대신에 연구진은 “집단의 정신적 활동의 패턴(또는 의식, 관습적인 사회적 행동 혹은 규칙적인 패턴으로 묘사되는 것)”을 찾고자 고안된 문화기술지 방법론을 연구방법론으로 활용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현재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또 참여하고 있는 이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들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범위를 체계화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연구대상 선정이나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여건상 연구대상을 서울에서 진행 중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로 한정하였다. 서울에서 진행했던 혹은 진행 중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자 및 참여자 총 18명을 대상으로 매 2시간에 가까운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11명을 두 차례에 나누어 초점집단인터뷰도 병행하였다. 개별인터뷰와 초점집단인터뷰를 위해 사전에 연구진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형이나 활성화 요인(프로그램 주관단체,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 진행방식, 진행자/참여자 관계 등)을 추려내어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두 단체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개별 및 초점집단인터뷰 과정에서 이 설문지는 지속적으로 보완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의 의견 속에서 민주주의, 시민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일관되고 공통된 요소를 찾아내긴 불가능했다. 예컨대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평등, 다양성 존중, 합의, 권력 분산 등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의견은 민주시민교육의 주제나 내용에 상관없이 교육 주관 단체나 진행자가 특정한 입장을 강요하거나 다른 입장을 지닌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꽃꽂이 교육이나 안보교육 역시 그것을 소재로 삼아 민주적인 지향 속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루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이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진은 민주시민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었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육 활동 자체가 절차적 민주성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생활정치를 포함한 정치 활동 또는 사회적 지향을 갖는 공익 활동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있어 (프로그램의 유형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은 적절한 홍보수단, 참여자 간의 활발한 관계맺음, 안정적 운영공간 확보, 개

인적 이해관심의 충족 여부 등으로 나타났다. 물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이나 진행자(강사)의 특성 등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과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은 후술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유형들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달랐다.
대신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을 얻고 이를 다른 곳에서 활용하는 것과 같이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했다. 이러한 개인적 이해관심의 충족은 비단 자격증과 같은 형태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후로 이루어지는 참여자들 간의 활발한 관계맺음 혹은 관계의 지속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경우, 운영자들은 장소 대관의 문제나 장소 유지비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었고 그로 인해 교육활동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 반대로 안정적이고 적절한 운영공간을 확보한 경우 참여자들은 이에 대한 만족도가 컸다.

셋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요소들이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연구진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주제'(사회적 주제, 개인적 주제)와 교육 '관심'(의제, 관계, 활동)에 따라 6가지 유형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구분할 수 있었다. 유형분류의 첫 번째 기준이 된 교육 주제의 경우 사회적 주제와 개인적 주제로 나누었다.
사회적 주제라 함은 민주주의 또는 민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이거나 단위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주제를 말하며, 개인적 주제는 직접적으로는 그 내용이 프로그램 진행 및 참여자에게만 관련된 주제를 의미한다. 또 다른 기준인 교육 관심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평화, 통일, 언론개혁 등과 같은) 특정한 '민주적 의제' 자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육활동이나, (마을협동조합과 같은) 사람들 간의 '민주적 관계'형성에 초점을 둔 교육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마다 다른 사회적 이슈를 다루기 위한 공론장 형성이나 예술 활동 등을 통한 공감과 배려교육과 같이) '민주적 활동' 자체에 초점을 둔 교육활동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전문성 확보(유형 1), 관심이나 의미의 공유(유형 2), 민주적 지도자 확보(유형 3), 공동의 산출결과(유형 4), 운영진 기획

력(유형 5), 운영진에 대한 인격적 신뢰(유형 6)라는 각기 다른 활성화 요인들을 가지고 있었다. 각각을 다시 살펴보면, 유형 1의 경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민주적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는데 초점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얼마나 그 전문성을 프로그램에 담아내고 있는지가 중요한 활성화 요소였다.
유형 2의 경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민주적 결과의 성취보다는 개인적 주제를 다루는 과정 속에서 민주적 지향과 의제를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였다. 유형 3과 유형 4는 지역주민모임과 같이 사람들 간의 관계 형성이 일차적 목표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것이 민주시민교육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그러한 관계들을 민주적 지향 추구로 발전시킬 민주적 의지와 리더쉽을 갖춘 지도자의 유무가 중요하였다(유형 3). 또한 그러한 관계형성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변화라는 결과가 만들어질 때 활성화될 수 있다(유형 4).
마지막으로 유형 5와 유형 6은 민주적 절차나 민주적 활동 자체를 더 많이 강조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운영진들이 어떻게 민주적 절차나 활동을 구성할 수 있는지 그 기획력(유형 5)과 그것을 민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신뢰 형성(유형 6)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추출할 수 있었다. 우선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정책적 반응성의 발휘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제로 작동해야 한다. 우리의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이 여러 기관과 단체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또 상이한 프로그램 유형별로 나름의 고유한 활성화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다 쉽게 말하면, 진보와 보수의 구분을 가리지 않고 또 사회적 주제와 개인적 주제의 구분을 가리지 않고 민주시민교육은 이뤄질 수 있으며, 이뤄지고 있고, 또 이뤄져야만 한다. 따라서 다양한 정치적, 이념적, 실천적 스펙트럼을 갖춘 이들과 그 각기 다른 스펙트럼을 포함하는 민주시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가 중요한 전제로 작동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중립성은 산술적, 기계적인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장한 것마냥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은 저마다의 활성화를 위

해 서로 다른 요구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유연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입장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하고 시행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간지원조직 및 민주시민교육 진행 단체들의 자율적인 연합 기구가 그 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공간 지원이나 정보화 사업 같은 물적 지원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후술할 연합 기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 중심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한편, 연합 기구의 경우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바로 여러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자 재교육을 포함해 자신들의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되돌아볼 수 있는 단체 간 혹은 단체와 개인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 활용방안 및 후속 연구 제언

이 글의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연구자 개인의 민주주의에 관한 혹은 시민교육에 관한 저마다 다른 이해의 바탕위에서 다소간의 이론적, 추상적, 당위적, 자의적인 접근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실제 진행하고 참여한 이들의 생생한 경험에 기반하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형분류 그리고 그에 따른 활성화 요인들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지니고 있다. 단순히 기존의 이론적 접근들에 대한 보완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구가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하고 시행하는 이들에 의한 실제적 활용에 적극 열려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새로이 기획하거나 진행 중인 민주시민교육을 평가하거나 발전시켜나가는데 있어 우리가 앞서 제시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형이나 활성화 요소들은 하나의 유용한 준거점을 제시해 준다. 물론 이 연구에서 제시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형이나 활성화 요소들이 고정적이거나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의 연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고민하는 이들이 스스로 점검해보고 적용해보며 수정, 보완해야 할 기본적인 점검 목록들을 제공한다.

물론 우리의 연구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한계들은 또한 후속 연구의 필요와 방향을 알려준다. 무엇보다 6개월이라는 짧은 연구 기간과 제한된 연구 인력으로 연구의 대상이 서울의 9개 단체에서 진행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표본의 수 자체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진행 중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수적'이라고 여겨지는 단체들에서 시행 중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분명한 한계이다.

더 많은 표본들을 확보하여 우리의 유형분류가 적합한지 그리고 유형별로 적합한 사례들을 선정하여 우리가 제시한 공통적/유형별 활성화 요소들이 올바르게 제시되었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앞선 장에서 제시한 정책적 함의 부분도 상당부분 피면담자들의 견해에 의존한 것으로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이 진정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라는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이른바 '실패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경험 분석의 부재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이들은 대개 자신들이 경험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인터뷰에 응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서 실패 혹은 부정적 경험을 지니고 있거나 현재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단체들을 집중 조사/분석 해봄으로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소들과 활성화를 촉진시킬 요소들을 상호 교차 검토해 볼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제시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유형이나 활성화 요소들은 향후 더 다양한 단체와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속에서 확인·수정·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연구는 어디까지나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합의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그 합의의 첫 단계를 놓아줄 기초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이 연구를 발판삼아 더 많고 다양한 대상을 포함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후속 연구의 과정 속에는 이 연구가 지니고 있는 서울이라는 제한된 지리적 범위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상하겠지만 자원이나 기회 등이 대단히 집중된 서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여타의 지역들은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조건이나 시행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컨대, 서울과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이 다를 것이며 경기도라고 해도 31개의 시 · 군이 또 다른 민주시민교육의 조건을 가질 것이다. 물론 그러한 차이에 따라 활성화 방안도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는 다른 지역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되 동시에 그 지역에 맞게 변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러한 작업은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의 노력들이 민주시민교육 실태(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더욱 중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별로 민주시민교육 현실에 기반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수적인데 우리의 연구 그리고 앞서 말한 후속 연구들은 이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을 포함한 이러한 지역별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가 종합되어 한국 민주시민교육 전체의 발전 및 지원 방향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문헌

강혜영(2018). “혁신학교 학생의 긍정적 변화과정 탐색 – 근거이론에 기초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5), 471-498.

고선규(2014). “학교 교과에서 정치, 선거학습내용과 민주시민교육.”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14-32.

곽혜송 · 홍미화(2017).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 실천 유형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24(1), 11-30.

구주형 · 한상훈 · 강훈(2015).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의식, 참여동기, 학습성과에 관한 구조적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7), 4,537-4,548.

권진욱 외(2016).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체계 구축 과정 연구 :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시민교육 연구보고서』.

김기현(2010).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과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세미나 자료집, 51-56.

김미향(2014). “한국 사회교육자 전문성에 관한 제도적 규정의 변천과정 연구.” 『평생학습사회』 10(3), 47-69.

김미향(2017). “한국 YMCA 사회교육실천가의 전문성에 관한 역사적 고찰.” 『평생학습사회』 13(2), 1-20.

김원태(2006). 『주요외국 학교시민교육 내용연구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은정(2018). “보다 나은 질적 연구 방법 모색기 – 근거이론 연구 수행의 실패와 갈등 경험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6(3), 273-318.

김의영 · 미우라 히로키(2018). “지역 기반 시민정치 교육의 내부적 긴장성 문제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수업 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한국정치연구』 27(3), 79-108.

김재웅(2018).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평생학습사회』 14(4), 79-110.

김태준 외(2003). 『사회적 자본형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의식 측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현 · 송경재(2015). 『시민성 제고를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 -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김혜원 · 강혜원 · 백지연(2018). “크리에이터에게 이용자와 ‘상호작용’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인터넷 개인방송 창작자에 관한 에스노그래피.”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9(2), 49-9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12). 『민주적 의사소통과 의사 결정 방법 연수 안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선영(2018). “청소년 지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 『청소년학연구』, 25(3), 187-209.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2018).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현황조사 연구용역 - 최종보고서』 서울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연구용역보고서.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2018). 『민주주의 서울, 민주시민교육을 전망하다』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송두범 · 강수현(2017). “민주시민교육 실행방안.” 충남연구원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8월31일자).

신수연(2008). “민주시민교육 사례보고: 민주화운동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3-115.

신두철(2015). 『민주시민교육 교수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콘라드-아데나워 재단.

신두철 · 허영식(2009). 『민주시민교육 핸드북 II : 방법론』 서울 : 오름.

심성보(2017).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집』 67, 93-122.

심성보 외(2018).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서울 : 북멘토.

원미순 · 박혜숙(2010).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 225-246.

안승대(2017).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의 재정립시도에 관한 연구.” 『동아인문학』 38, 221-253.

엄상현(2014). “초등학교 인성교육 실태 분석-근거이론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한국교육』 41(4), 79-101.

유승래 · 손은령(2018). “학습자가 이해한 시민교육의 의미 탐색 : D시의 시민단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문화연구』 24(3), 189-204.

이경태 · 문상진 · 전병운(2016).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의 소외에 대한 체험들.” 『열린교육연구』 24(1), 171-198.

이규영(2005).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국제지역연구』 9(3), 157-185.

이승원(2018). “직접민주주의의 정치철학적 기반에 관한 연구 : 포퓰리즘인가 민주주의인가?”, 『시민과세계』 32, 1-29.

이용숙 · 이수현(2016). “대학생의 점심식사 방식과 점심식사에 부여하는 의미 - 문화기술적 연구.” 『비교문화연구』 22(2), 329-390.

이인재 · 이기후(2009).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민주시민교육의 실태 분석과 발전방향』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과제.

이종규(2006).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이희연(2013). “학교폭력 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지.” 『학교사회복지』 25, 275-309.

장은주(2017).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서울 : 피어나.

전병혜 · 송혜승 · 이명훈(2017). “도시재생을 위한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4), 155-181.

정문성(1998). “초, 중등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방향과 수업모형.”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3, 197-217.

정원규 외(2018). 『민주시민교육 : 초 · 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추진 제안서』,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정원규(2017). “교육개혁의 원칙, 끝, 그리고 시작.” 『철학연구』 119, 67-93.

정원규(2017). “한국 교육의 민주적 대안을 성찰하다.” 『시민과 세계』 30, 269-278.

정창화(2005).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착근방안 -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체제구축 및 조직설계를 중심으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10, 59-83.

정필운(2018).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법개정이 필요한가?” 『민주사회와 교육』 63, 44-52.

정하윤(2014).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과정과 쟁점.” 『미래정치연구』, 4(1), 31-53.

정하윤(2015).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 역사와 제도화 과정.”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세미나 발표문, 91-109.

조철민(2014). 『YMCA, 흥사단, YWCA의 활동을 통해본 시민운동 행위양식의 형성과 변화의 궤적 (1981-2010)』, 박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조철민(2017. “시민사회 발전과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세미나 발표문, 34-47.

주은경(2014). “모든 시민은 교사, 예술가, 정치가다.” 『시민과 세계』 24, 192-211.

차명제(2018). “소외를 넘어 공존으로 :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한국사회학회 2018 정기사회학대회 논문집, 85-96.

채진원 · 박숙경 · 김성일(2015).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15(1), 69-103.

하재현 · 박형숙(2016). “응급실 간호사의 일상에 대한 문화기술지.” 『기본간호학회지』 23(4), 448-459.

허영식(2005). “민주시민교육의 방법론적 착근방안.”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10, 19-58.

허영식(2011).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아태연구』 18(1), 45-64.

현순안 · 김희주(2019). “국내 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동향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20(1), 231-256.

국외문헌

Althusser L.(1971).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in Althusser L.,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New Left Books, 123-173.

Berry, J., K. Portney and Thompson, K.(1993). The Rebirth of Urban Democracy.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Creswell, J. W., 조흥식 외 옮김(2015).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서울 : 학지사.

Deucher, R.(2007). Citizenship, Enterprise and Learning. Trentham Books.

Diamond, L.(1999). Developing Democracy : Toward Consolidation.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Held, D.(1987). Models of Democracy. Polity Press.

Held, D., 이정식 옮김.(1993). 민주주의의 모델. 서울 : 인간사랑.

Inglehart, R.(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Kerr, D.(2000). "Citizenship Education: An International Comparison." in D. Lawton, J. Cairns and R. Gardner eds. Education for Citizenship.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Lipset, S. M.(1959).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1), 69-105.

Putnam, R. D.(1993).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Spradley, James P.(1980). Participant Observation. Holt, Rinehart and Winston.

웹 자료

참여연대
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 (2019. 11. 19.)
http://academy.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 &mid=lectures&search_target=tag&search_keyword=민주주의&document_srl=25094 (2019. 12. 16.)

허스토리마실협동조합
https://cafe.naver.com/motherpower?iframe_url =/ArticleRead.nhn%3Fclubid=12196402%26page=1%26menuid=40%26boardtype=L%26articleid=2534%26referrerAllArticles=false (2019. 12. 16.)

성북구청
https://cafe.naver.com/motherpower?iframe_url=/ArticleRead. nhn%3Fclubid=12196402%26page=1%26menuid=40%26boardtype=L%26articleid=2534%26referrerAllArticles=falsehMenuNo= (2019. 12. 16.)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곁
https://kdeside.tistory.com/1 (2019. 12. 16.)

극단 작은곰
https://www.facebook.com/20161129jagunkom/photos/rpp.124423624781512/549706072253263/?type=3&theater (2019. 12. 16.)

부록

[부록 1] 연구 대상자 개요

연번	특성	연구 참여 시기	연구 참여 방식
1	관리자	2019년 8월	FGI
2	관리자	2019년 8월	FGI
3	관리자	2019년 8월	FGI
4	관리자	2019년 11월	FGI
5	참여자	2019년 10월	심층면담
6	진행자	2019년 9월	심층면담
7	관리자	2019년 8월	FGI
8	관리자	2019년 11월	FGI
9	진행자	2019년 8월	심층면담
10	참여자 / 진행자	2019년 10월	심층면담
11	진행자	2019년 10월	심층면담
12	참여자	2019년 7월	심층면담
13	진행자	2019년 7월	심층면담
14	관리자	2019년 11월	FGI
15	관리자	2019년 8월	FGI
16	관리자	2019년 11월	FGI
17	참여자	2019년 10월	심층면담
18	진행자	2019년 9월	심층면담
19	참여자	2019년 10월	심층면담

연번	특성	연구 참여 시기	연구 참여 방식
20	진행자	2019년 7월	심층면담
21	참여자	2019년 7월	심층면담
22	참여자	2019년 8월	심층면담
23	관리자	2019년 11월	FGI
24	진행자	2019년 10월	심층면담
25	참여자	2019년 9월	심층면담
26	진행자	2019년 10월	심층면담
27	참여자	2019년 9월	심층면담
28	관리자	2019년 8월	FGI
29	진행자	2019년 8월	심층면담

부록

[부록 2] 설문지(프로그램 진행자용)

질문범주		질문내용(진행자)
단체 및 조직	단체	단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설립배경, 연혁, 주요목적과 활동, 인적/공간적 구성 등) 이 단체에서는 언제부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운영해왔나요?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선생님께서는 이 단체에 언제,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활동자	다른 단체에서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나요? 어디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더 비중을 두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프로그램	내용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나요?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주제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해당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나요? 해당 프로그램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활동가, 일반인, 학생 등) 특별히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나요? 이 프로그램 외에 진행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운영방식	이 프로그램은 단체 내에서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편성되고 시작하게 되었나요? 프로그램의 주제나 내용, 방식 등은 어떻게 선정되고 결정되나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데 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제안된 프로그램 중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그 중요한 점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려면 어떠해야 하나요?(예를 들어 공간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어떤 공간이 좋은가요? 어떤 공간이 좋지 않나요?)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은 무엇인가요? (개방형 질문으로 이야기를 듣고 연구진이 차후에 분류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주제의 경우 참여자들이 바로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신경쓰는 부분이 있나요? 해당 프로그램과 연계된 다른(단계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나요?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자격증 등을 부여하고 있나요? 유사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수강하고 심화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나요? (이후 강사로 참여한다든지)

질문범주		질문내용(진행자)
프로그램	특징	단계가 변화될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나 계속 참여하나요? 참여자 홍보와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공간) 프로그램 피드백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주면 이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예를 들면, 단순히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참관하고 의견에 반응해준다든지, 언론사에 홍보되도록 도와준다든지 등과 같은 것) 다른 단체와 비교할 때 이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혹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격증 같은 것이 발행되나요? 거기에 대한 진행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격증의 용도 질문 포함) 본 단체와 다른 단체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운영이 잘되지 않았거나 잘되지 않는 사례가 있나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일단 단체 전반적인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 이곳이나 다른 곳에서 활동하면서 프로그램 진행이 잘되지 못한 사례가 있나요?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불만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을 잘 보완할 방법이나 잘 보완한 사례가 있나요?
관계	진행자 - 참여자	긍정적 참여자 사례와 부정적 참여자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진행을 힘들게 하는 참여자가있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참여자들은 어떤 진행자(강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나요? 참여자들이 싫어하는 진행자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참여자들의 의견이 엇갈릴 때(주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운영방식이나 절차 등 사소한 것 관련하여) 어떤 사람의 의견을 우선시하나요? 어떻게 조정하나요?
관계	참여자 - 참여자	프로그램 주제와 관련하여 참여자들 사이에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가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 참여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치나요?

부록

질문범주		질문내용(진행자)
관계	참여자 - 참여자	프로그램 내에서 참여자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시간이나 빈도가 많은 편인가요? 많거나 적다면 어느 정도 비중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참여자 중에서 자기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활발히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새로 참여한 사람들이 잘 적응하는 편이지, 다소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을 갖는지요?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외에 개인적으로도 모임을 갖는지요? 갖는다면 어떤 식의 모임을 갖는지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서로 실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는지요? 있다면 예를 2~3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	사회적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 또는 예상한 결과는 무엇인지요? 참여자들에게서 기획 의도에 따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프로그램 이후 진행된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컨대 수강생이 증가 혹은 감소하였나요?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요인 때문이었을까요?
	개인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스스로 변화된 것이 있나요? 꼭, 이번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여러 가치나 태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마다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형제	사형제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형제는 인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형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는 아이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교에서 엎드려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범주		질문내용(진행자)
추가질문	시민	선생님은 시민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불법체류자도 시민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주시민교육	선생님은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주시민교육이 특별히 다루어야 할 주제나 염두에 둔 교육방식이 있나요? 최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중입니다. 예를 들어 안보교육이나 반공교육을 민주시민교육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또는 꽃꽂이 교육이나 꽃가꾸기 등의 활동도 민주시민교육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적 보람	민주시민교육 관련 일을 하면서 순수하게 선생님 개인에게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개인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제언		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을지 말씀해주세요.

부록

[부록 3] 설문지(프로그램 참여자용)

질문범주		질문내용(참여자)
단체 및 조직	단체	단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계기로 단체를 혹은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는지요? (구체적인 답변 요구)
	활동자	프로그램 참여와 별도로 주관 단체를 신뢰하는 편이신지? 그렇다면 이유는?
프로그램	내용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나요? 해당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나요? 해당 프로그램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활동가, 일반인, 학생 등) 해당 프로그램의 대상모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모두공개/회원중심) 특별히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프로그램 외에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운영방식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은 무엇인가요? (개방형 질문으로 이야기를 듣고 연구진이 차후에 분류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프로그램 내용 말고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자로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있다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자의 의견이 반영되나요? 반영된다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측에서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 및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더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해당 프로그램과 연계된 다른(단계별) 프로그램이 있나요?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자격증 등을 부여하고 있나요? 유사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수강하고 심화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나요? (이후 강사로 참여한다든지) 단계가 변화될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나 계속 참여하나요? 어떤 홍보나 모집공고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알고 참여하게 되셨나요?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면 이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특징	다른 단체와 비교할 때 이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질문범주		질문내용(진행자)
프로그램	특징	혹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격증 같은 것이 발행되나요? 거기에 대한 참여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격증의 용도 질문 포함) 혹시 다른 단체의 프로그램에 실망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불만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을 잘 보완할 방법이나 잘 보완한 사례가 있나요?
관계	진행자 - 참여자	참여자들은 어떤 진행자(강사)를 좋아하나요? 참여자들이 싫어하는 진행자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진행자들이 좋아하는 참여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나요? 혹시 (진행자나 다른 참여자에 대한 불만 등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중단한 혹은 겨우 끝마친 경험이 있으신지요? 참여자들의 의견이 엇갈릴 때(주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운영방식이나 절차 등 사소한 것 관련하여) 어떤 사람의 의견을 우선시하나요? 어떻게 조정하나요?
	참여자 - 참여자	프로그램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과 다른 참여자들 사이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가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 참여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치나요? 프로그램 내에서 참여자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시간이나 빈도가 많은 편인가요? 많거나 적다면 어느 정도 비중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참여자 중에서 자기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활발히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준 경우가 있는지요? 있다면 간략히 2~3개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는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많은 편인가요? 새로 참여한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새로 참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는지요?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실제 도움을 얻은 적이 있나요?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다른 참여자들과 프로그램 시간 외에 사적인 모임을 갖나요? 어떤 식의 모임인가요?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인가요?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나요?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 다른 참여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프로그램 진행을 방해하는 참여자를 본 적이 있나요?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행동했고, 또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나요?

부록

질문범주		질문내용(진행자)
효과	사회적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참여자들에게서 기획 의도에 따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후에 다른 유사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혹 그렇다면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 수강을 마친 후에 혹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개인적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획 의도와 무관하게 본인에게 변화가 있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후에 사회적 의의와 무관하게 어떤 식으로든 이익이 된 일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여러 가치나 태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마다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형제	사형제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형제는 인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형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는 아이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교에서 엎드려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민	선생님은 시민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불법체류자도 시민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주시민교육	선생님은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주시민교육이 특별히 다루어야 할 주제나 염두에 둔 교육방식이 있나요?

질문범주		질문내용(진행자)
추가질문	민주시민교육	최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중입니다. 예를 들어 안보교육이나 반공교육을 민주시민교육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또는 꽃꽂이 교육이나 꽃가꾸기 등의 활동도 민주시민교육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적 보람	민주시민교육 관련 일을 하면서 순수하게 선생님 개인에게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개인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제언		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을지 말씀해주세요.

민주시민교육 연구보고서 2019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지역 민주시민교육 유형화 및 효과분석을 위한 질적 연구

발 행 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www.kdemo.or.kr
연 락 처	031-361-9500 /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발 행 인	지 선
발 행 일	2019년 12월 30일
기 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
제 작	디자인파인
ISBN	979-11-87593-65-2

연구책임자	정원규 (서울대학교)
공동연구원	김원석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옹진환 (가원중학교)
	정하윤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SNU R&DB Foundattion